



보 도 자 료

[총 10매, 세부자료 불임]

배포 : 2016년 3월 17일(목)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변서영 061-900-2215/ sybyeon@arko.or.kr

기획조정부 이재일 02-760-4714 / news@arko.or.kr

2016년 제15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건축전 한국관 예술감독 기자간담회 개최

김성홍 예술감독,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전시 〈용적률 게임 : 창의성을 촉발하는 제약〉 계획 공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ts Council Korea, 위원장 박명진)는 17일(목) 오전 11시 서울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에서 2016년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건축전 한국관 예술감독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 11월 선정한 예술감독인 김성홍 교수(서울시립대 건축학부)가 전시를 총괄하며, 신은기, 안기현, 김승범, 정이삭, 정다운 공동큐레이터가 기획한다.
-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2016년 수상) 칠레 출신의 알레한드로 아라베나(Alejandro Aravena) 총감독이 제안한 ‘전선에서 알리다(Reporting From the Front)’라는 주제에 따라, 한국관은 <용적률 게임 : 창의성을 촉발하는 제약 / The FAR (Floor Area Ratio) Game: Constraints Sparking Creativity>을 주제로 전시를 선보이며 우리 도시 속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축계의 도전과 결과들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한국관은 건축가의 작품을 모아 놓은 기존의 방식과 달리, 큐레이팅 팀이 주제에 부합하는 건축물을 선정하고 이를 재해석한 전시이다.
- 한국관이 테마로 제시하는 ‘용적률 게임’은 한정된 대지에 최대의 건물 면적을 요구하는 건축주,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질을 추구하는 건축가(사), 이를 통제하고 조율하는 법과 제도 사이에서 벌어지는 범사회적 현상으로, 지난 50년간 한국 도시건축의 숨은 동력이었으며, 현재도 99%의 건축가가 생존을 위해 부딪치고 있는 전선이다.

- 중산층과 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인 다가구, 다세대, 상가주택 등 가장 보편적인 중간건축을 시각 미술가를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과 매체로 조명하고, 그동안 건축예술의 영역으로 보지 않았던 이러한 건물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방식의 용적률 게임을 해부하고, 작은 단위의 도시 재생의 가능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 전시를 위해 서울에 있는 약 60만동의 건물 데이터를 분석하여 왜, 어떻게 용적률 게임이 벌어지고 있으며,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의미와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제시한다. 전시장 중앙홀에는 관객들의 시선을 압도하는 36개 건축물의 72개 대형 모형과 도면 등이 설치된다. 전시장 벽면에는 서울의 인구밀도, 도시 성장에 관한 시계열 데이터와 함께 현재 도시의 모습을 블록부터 개별 건물 단위까지 세밀하게 분석하여 시각화한다. 아울러 한국관 주제를 바라보는 세계의 건축 도시 전문가들의 비평과 견해를 담았다.
- 2016년도 제15회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은 5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탈리아 베니스시 현지 카스텔로 공원 및 아르세날레 전시장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관은 5월 26일 오후 2시 기자간담회, 오후 3시 전시 개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사회 : 2016. 5. 26 ~ 5. 27)
- 또한, 아르세날레에서 열리는 본전시에는 독일에서 활동하는 설치미술가인 최재은 작가가 초청되어 “꿈의 정원(夢의 庭園, Dreaming of Earth)”을 주제로 작품을 선보인다. 이 전시는 남북 협정으로 설정된 DMZ를 예술적으로 재해석하여 남북 분단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제안을 담은 프로젝트로 2014년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반 시계루와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끝/

한국관 전시개막 및 세부일시 (이탈리아 현지)

- 2016년도 베니스비엔날레 전시 기간 : 2016. 5. 28 ~ 2016. 11. 27
- 프리뷰 : 2016. 5. 26 ~ 5. 27
- 한국관 기자 간담회 : 2016. 5. 26 오후 2시
- 한국관 전시 개막식 : 2016. 5. 26 오후 3시

2016년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용적률 게임 : 창의성을 촉발하는 제약
The FAR Game : Constraints Sparking Creativity〉 미리보기

I. 2016 비엔날레 전체 주제 해석

▶ 2016년 전시 주제 '전선에서 알리다(Reporting from the Front)는 인간의 삶의 질에 미치는 건축의 역할과 본질적 가치에 대한 물음

- '전선에서 알리다(Reporting from the Front)'는 건축의 궁극적 목적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는 당연한 전제를 환기하는 총감독 알레한드로 아라베나의 주문이다. 이는 점차 사회와 부조화되는 건축, 사적영역으로 기우는 소수의 현란한 건축에 대한 각성과 본연의 가치를 복원하고자 하는 베니스비엔날레 재단 회장 파올로 바라타(Paolo Baratta)의 언설과 닿아 있다.
- 핵심은 건축가들이 처한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대면한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선을 넓히기 위해서, 비난, 불평, 사변보다는 행동으로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은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창의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한국관은 전체 주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답을 것인가? 큐레이팅 팀은 먼저 '한국건축의 전선은 무엇이며 어디인가 (What or where is the front line of Korean architecture?)'를 묻고 기획을 시작했다. 이는 '한국 건축가들은 어떤 조건에서 작업하는가 (In which conditions are Korean architects working?) 와 일맥상통하는 물음이다.

II. 한국관 주제설명 및 기획의도

▶ 다섯 개의 영역으로 구분된 전시장 내에서 용적률 게임을 통한 다양한 건축적 실험과 사회문화적 의미와 가치 조망할 예정

-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건물 바닥면적의 합)의 비율을 뜻하는 법적 용어이지만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말이다. 지난 50년 동안 서울의 변화를 가장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키워드이자 집단적 욕망을 드러내는 지수(指數)이다.
- 용적률 게임은 급속한 도시화, 인구집중, 과밀화, 압축성장, 지가의 고공행진, 건설산업의 부산물이며 도시-농촌, 빈-부, 지식인-노동자 가릴 것 없이 모두의 삶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 용적률 게임은 대한민국의 건축가(사)들에게는, 특히 홀로서기를 시작한 젊은 건축가들에게는 생존을 위해서 대면할 수밖에 없는 전전이다. 큐레이팅 팀은 용적률 게임이 요구하는 경제적 가치를 넘어 이를 혁신의 동인으로 삼는 다양한 건축적 실험과 사회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는 전시를 기획했다.
- 전시장은 크게 다섯 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 첫째, 용적률 게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도입부
 - 둘째, 다가구, 다세대 주택, 상가주택 등 가장 보편적인 건축 유형과 건축가들이 설계한 36개 건축물을 모형, 다이어그램, 사진, 영상으로 시각화한 중앙홀
 - 셋째, 인구, 경제, 도시 및 건축 유형 등의 자료를 분석한 좌우 벽면
 - 넷째, 네 명의 미술가들이 각기 다른 시각으로 포착한 우리 도시와 거리의 풍경을 담은 독립 방
 - 마지막으로 용적률 게임의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전 세계의 건축 도시 전문가들의 견해를 엮은 결론부로 구성된다.

III. 2016년 한국관 전시 참여진

2016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참여진

커미셔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총괄 : 국제교류부장 임수연, 코디네이터 변서영, 베니스 현지 코디네이터 김은정

예술감독/큐레이터 (Director/Curator): 김성홍

부큐레이터(Associate Curator): 신은기, 안기현, 김승범, 정이삭

조큐레이터/사무국장(Assistant Curator) 정다운

Exhibitors: 김성홍, 신은기, 안기현, 김승범, 정이삭, 정다운

초대 미술가: 강성은, 백승우, 정연두, 신경섭

그래픽 디자인: 정진열

영문 교정 및 감수: 리차드 이노스

스태프: 김형범, 최민정, 이우조, 도형록, 강희라, 김종울림, 곽윤재, 이정연, 박찬범, 이경재, 서정인

건축모형 제작 코디네이터: 심현기

자료제공 건축사무소/건축가:

와이즈건축 (장영철, 전숙희)

에이엔디 (정의엽)

디자인밴드요앞 (신현보, 류인근, 김도란)

에스오에이 (강예린, 이치훈, 이재원)

아파랏.체 (이세웅, 최연웅)

아키후드 (강우현, 강영진)

폴리머 (김호민)

에스에스디 (박진희)

오비비에이 (이소정, 곽상준)

깊은풍경 (천경환)

건축공방 (심희준, 박수정)

최페레이라건축 (최성희, 로랑 페레이라)

사이건축 (이진오, 박인영, 임태병, 김성준)

조호건축 (이정훈)

바우건축(권형표, 김순주)

방바이민 (오세민)

유.경건축 (권경은, 지정우) + 에이앤엠 (김희준)

매스스터디스 (조민석)

엔이이디건축 (김성우, 김상목)

유타건축 (김창균)

삼현도시건축사사무소 (김용남)

아르키움 (김인철)

운생동 (장운규, 신창훈)

더시스템랩 (김찬중)
로디자인 도시환경건축연구소 (김동진)
인터커드 (윤승현)
에이앤엘스튜디오 (안기현, 신민재, 이민수)
오다건축사사무소 (오영욱)
경계없는작업실 (조성현, 문주호, 임지환, 류재희)
디자인그룹오즈 (신승수, 임상진, 최재원)
티알유건축사사무소 (조성익)
디아건축 (정현아)
이로재김효만건축사사무소 (김효만)
경영위치 (김승희)
건축사사무소오씨에이 (임재용)
황두진건축사사무소 (황두진)

Counselor: 존 페포니스

Advisory Group: 최문규, 임재용, 이충기, 박철수, 리차드 이노스

International Public Relations: 신혜원, 한소영

에세이 기고

존 페포니스 (조지아텍 건축대학), 마크 시몬스 (FRONT, 뉴욕), 로완 무어 (영국 가디언지), 피터 윈스톤 페레토 (홍콩 중문대), 줄리안 워렐 (호주 아델레이드대), 메타 버그하우저 폰트 (스웨덴 스페이스 모폴로지 그룹), 네빌 마스 (BURB, 상하이), 김경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위니 마스 (MVRDV, 로테르담)

도록출판: SPACE

후 원: Inspire IR 협찬: LG전자

IV. 예술감독 및 공동큐레이터 약력

■ 예술감독



김성홍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전문분야 : 건축설계 및 이론

김성홍 교수는 2006년 워싱턴주립대 풀브라이트 연구교수, 2007~2009년 서울시립대 기획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을 지냈다. 2004년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 부커미셔너를 역임했고, 2005년 한독 퍼블릭스페이스 포럼을 기획했다. 2007~2010년 3년 동안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탈린, 바르셀로나,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메가시티 네트워크 : 한국현대건축전’을 총괄기획하였다. 저서로는 『Megacity Network: Contemporary Korean Architecture』(2007), 『도시 건축의 새로운 상상력』, (2009), 『길모퉁이 건축』(2011)을 포함하여 우리 도시와 건축에 관한 책을 국내외에 출간했다.

■ 공동 큐레이터

신은기 / 인천대학교 도시건축학부 조교수

미국 워싱턴 디씨에서 다양한 건축설계 및 마스터플랜 실무를 하였으며, 사회 기술적 조건에 대응하여 건축 디자인의 유형화와 그 변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11년 20세기 중반 미국 대량생산 주택이 만들어낸 주거 문화와 이를 바탕으로 나타난 건축가들의 실험 주택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인천대학교에서 사회적, 기술적 제도와 건축 디자인에서 공공성 확보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연구 및 교육을 하고 있다.

안기현 /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2010년에 AnLstudio라는 디자인스튜디오를 공동설립하여, 다양한 스케일의 작업을 시도해왔으며 2013년부터 한양대학교 건축학부에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2010년 Red dot Award에서 best of best 수상한 “Oceanscope”. 호주 브리즈번 Asia Pacific Design Triennial “Lightwave”, 종로 서촌에 극소주택 “몽당”, 중국 광저우에 컨벤션홀 “The Suit”, 신당동 근린생활시설 “다공”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MOMA에서 공동주최하는 “2014 Young Architect Program”에 최종후보였다. 서울시립미술관, 대림

미술관, 소마미술관,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아르코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시 및 단체전시에 작가로 참여하였으며, 설화수에서 주최하는 2014 설화문화전에서 아트디렉터 및 큐레이터로 참여하였다.

김승범 / VW LAB 대표

서울건축과 공간건축에서 다수의 건축 설계와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카이스트 미래도시연구소에서 건축과 IT를 접목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연구전담교수를 거쳐 현재 VW LAB의 대표로 있다. 2014년 Berlin AEDES Gallery의 "Seoul : Towards a Meta City" 전시에 공동 큐레이터로 참여하였다.

정이삭 / 에이코랩(a.co.lab) 대표

정이삭은 2013년 에이코랩(a.co.lab)을 설립하고, 'DMZ 평화공원 마스터플랜 연구', '철원 선전마을 예술가 창작소', '연평부대 도서관', '마장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헬로우뮤지움 동네미술관', '동두천 장애인 복지관 문화공간 조성' 등의 사회적 건축과 공공 연구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 외에 'REAL DMZ PROJECT 2013' 총괄 코디네이터를 맡은 바 있으며, 도시 미술 프로젝트인 '2015 서울서울서울'을 공동 기획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5 공공디자인대상' 우수상,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2015 It-Award' 공공환경디자인상, 그리고 '2016 따듯한 공간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정다운 / CoRe architects 팀장

studio asylum과 massstudies에서 실무를 하였으며 지금은 CoRe architects에서 건축, 도시 리서치를 하고 있다. 도시 변화 안에서 건축물들은 각각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조사하고 이런 건축적 요소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표현할지에 대해 연구 중이다. 특히 서울에서 7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의 변화에 관심이 많다. 그동안 수집한 30년 이상 된 건축물 사진을 모아 'memoryscape' (2010)전시에 참여했고, 오픈하우스 서울 (2014) '초기아파트를 만나다' 답사, 서울시민건축학교(2015) 건축답사 등을 진행했다. 2015년에는 서울도시건축국제비엔날레 SNS platform 구축을 위한 '#너머도시 #citythru' 를 기획하였다.

IV. 한국관 전시관련 주요 이미지



Image 1 : 용적률 게임은 고층 건물에서 협소 주택에게 이르기 까지 다양한 유형, 크기, 양상으로 도시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붉게 표시한 부분이 용적률 게임의 결과로 나타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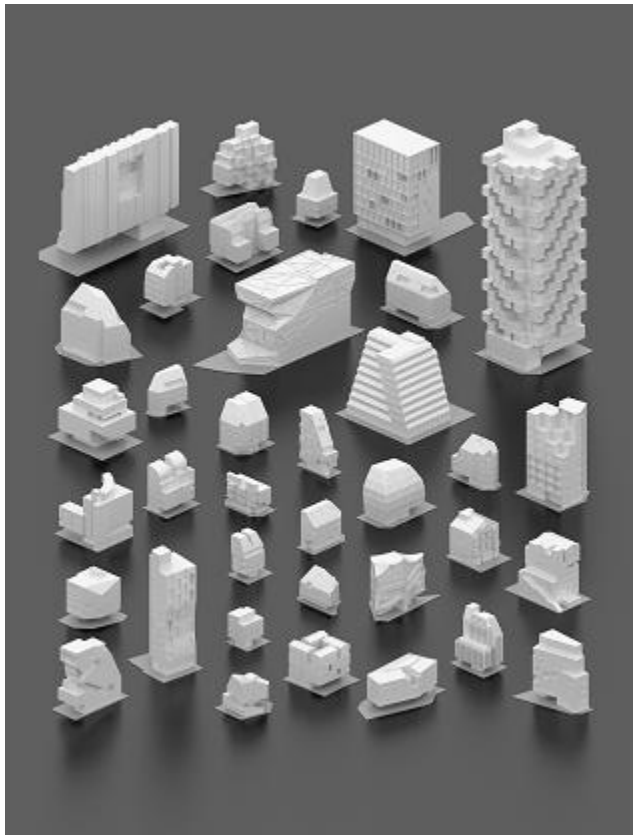


Image 2 : 전시장 중앙 홀에는 관객들의 시선을 압도하는 같은 축척으로 제작된 대형 모형 72개가 도면과 함께 설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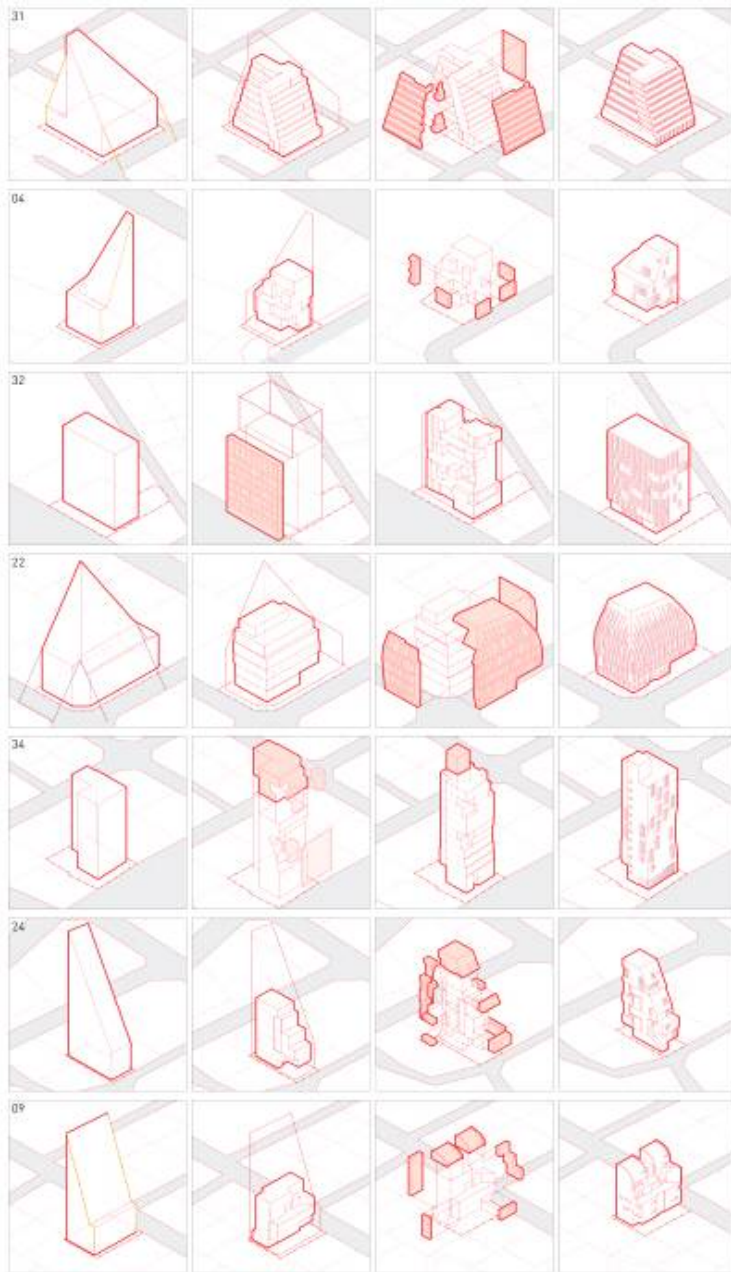


Image 3 : 용적률 게임의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는 36개 건축물 다이어그램의 일부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민과의 소통과 정보의 개방을 지향하는 정부 3.0 구현의 일환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061-900-2215 / sybyeor@arko.or.kr)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